

보도시점 2024. 3. 4.(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4. 2. 29.(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철도 공기업과 '탄소중립' 어린이 환경교육도서 발간

- 수도권 소재 초교 배포, 주요서점 5곳에 전자책 무료 제공
- 하반기 영어·몽골어 번역본, 몽골 쓰레기 매립장 소재지 초교 배포 계획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익)는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 공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알(대표 이종국)과 '탄소중립'을 소재로 하는 어린이 환경교육도서 '구독과 좋아요, 탄소제로 여행'을 공동으로 발간하고, 3월 5일 주요서점 등에 전자책(e-book)을 무료로 공개한다.

이번 어린이 환경교육도서는 두 기관이 지난해 7월부터 협업을 시작해 전문가 자문단 구성에 이어 작가 공개모집을 거친 후 현직 초등교사(심정은 향산초 교사)가 집필을 맡아 제작했다. 이 도서는 기후위기 시대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쉽게 읽히면서도 보다 희망적인 메시지로 '탄소중립'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도서는 탄소중립을 실현한 '2030년 미래'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몽골, 독일 출신의 아이들이 청소년 영상제작(크리에이터) 대회에 참가해 탄소중립을 주제로 브이로그*를 제작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모두 6장 103쪽으로 구성됐으며, 탄소중립 용어 등의 부록도 포함됐다.

*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를 합친 말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

두 기관은 이번 도서를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2,117곳에 책자와 전문을 담은 전자파일(PDF)을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3월 5일부터 기관 누리집(www.slc.or.kr, www.srail.or.kr)과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 5곳에 전자책(e-book)을 무료로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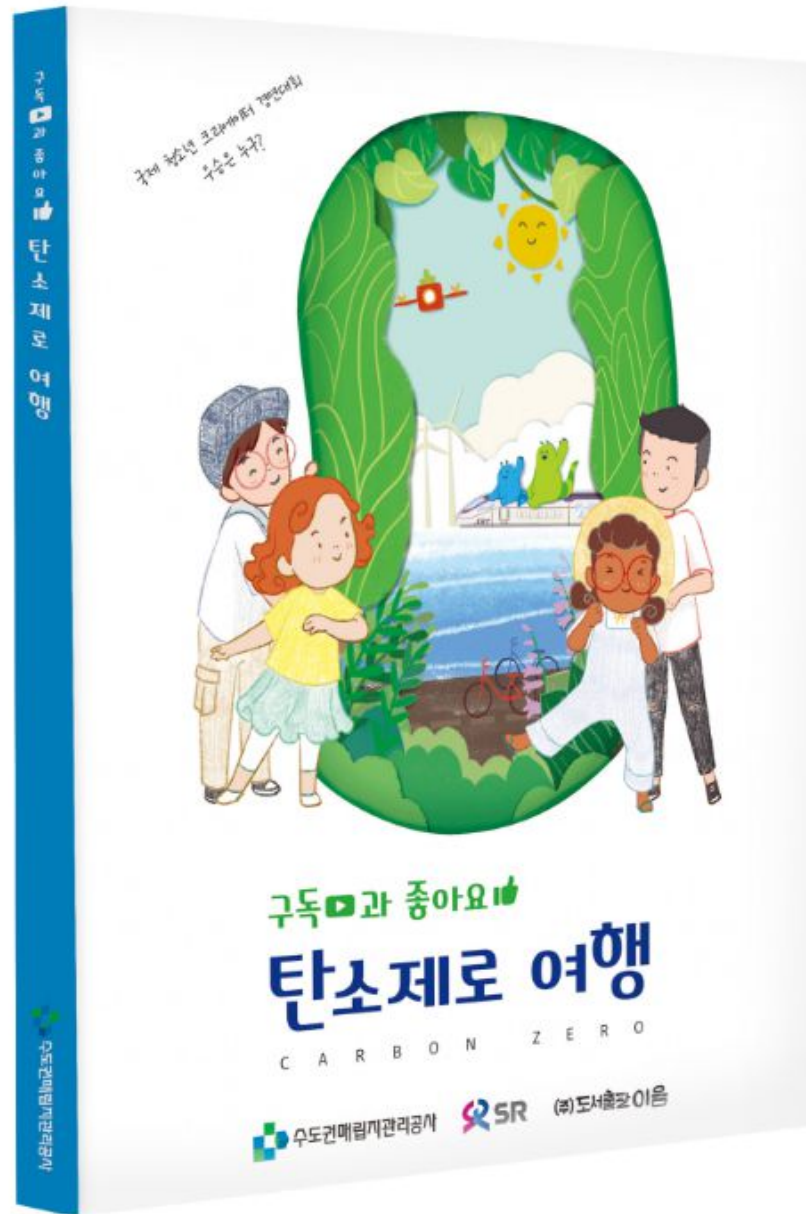
또한 하반기에는 영어·몽골어로 번역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몽골 나랑진 매립장(NEDS, Naranjin Enger Disposal Site) 인근의 초등학교(몽골 울란바토르 소재)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송병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우리 기관이 해외 쓰레기 매립장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을 하고 있고, 철도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 교통 수단인 만큼 ‘탄소중립’을 공통분모로 하는 두 기관이 힘을 모았다”라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아이들 교육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어린이 환경 교육도서를 제작했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책 표지 2종(입체/평면)
 2.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총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홍보비서부	책임자	부장	권희동 (032-560-9315)
		담당자	과장	백영순 (032-560-9424)





책 표지(입체)

국제 청년 크리에이티브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작



구독과 좋아요

탄소제로 여행

C A R B O N Z E R O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 도서출판 이름

책 표지(평면)

1. 두 기관이 공동 발간한 취지가 궁금합니다?

- 두 기관의 공통점이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매립지공사는 지난해 1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해외 쓰레기 매립장에서 메탄가스를 연소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에스알은 대표적인 친환경, 탄소저감 교통수단인 고속철도(SR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에스알에서 공사가 지난 ‘21년부터 추진 중인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협업을 요청해 왔고, 지난해 7월 공동으로 어린이 도서를 제작해 초등학교 등에 환경교재로 제공하기로 협의했습니다.

2. 공사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지정으로 공사는 기술지원·투자·구매 등을 통해 국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해당 감축 실적 중 일부를 한국 정부와 기업으로 이전합니다.
- 공사가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몽골에서 첫 삽을 뜹니다. 울란바토르시 나랑진(NEDS, Naranjin Enger Disposal Site) 매립장 매립가스 연소시설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12년간 총 56만7000t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됩니다. 착공 준비를 위해 올해 1월 공사 전문인력 2명을 몽골 현지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3. 자문단 구성, 작가 공개모집은 어떻게 이뤄졌나요?

- ‘기후위기’, ‘탄소중립’은 그 중요성에 비해 아이들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에 보다 쉽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자 초등교육·환경교육·

기후위기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원고 방향부터 최종 감수까지 매 시기 자문을 받아 책을 완성했습니다.

- 같은 취지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를 풀어 갈 작가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동화작가 등 여러 명이 응모했으며, 최종 현직 초등교사가 선정됐습니다.

4. 도서는 신청하면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나요?

-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도서관에 책자를 1권씩 배포하되, 가급적 PDF나 전자책(이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주요서점 5곳(교보문고·예스24·알라딘·리디·북큐브)에 전자책(이북)을 무료로 제공하고, SRT 유아동반석에도 정보무늬(QR코드)를 제공해 보다 많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5. 몽골 쓰레기 매립장 소재지 초등학교 배포도 흥미로운데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쯤 배포가 되나요?

- 오는 4월에 두 기관 대표가 만나 업무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며, 영어·몽골어 번역을 통해 늦어도 올 10월 안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시 소재의 초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 두 기관은 ‘탄소중립’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을 모아야 하는 현안인 만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책무를 다한다는 자세로 도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